黨政 파병 연장안 갈등 재연

자이툰 1,100명 감축·1년 파병 연장안 각의 의결

與 "철군 계획서부터" 반발…국회 처리 난항 예고

정부가 자이툰부대 등 국군의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에 1천200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축 계획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29일중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연장동의안 내용을 최종 조율한 뒤 국방부를 통해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견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철군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군계획서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철회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요즘 부쩍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을 없던 일로 돌릴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 또한 동맹국들의 이라크 철군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철군'을 계획하는 것은 군사외교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철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싶지않다"면서 "정부는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감군'이란 표현을 주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중으로 자이툰부대 철군 계획서를 마련하기는 힘들며 '감군-주둔연장'을 내용으로 한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들은 1천200여명 선에서 주둔을 연장하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이툰부대의 내년 평화·재건 임무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이툰부대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아르빌사무소 요원에 이어 아르빌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 요원 경호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요인 경호 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는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병사들이 27일(현지시각) 밤 다른 여단으로 대치돼 이라크를 떠나는 11여단 동료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4주만에 만난 北-美, 여전히 '기싸움'

김계관·힐, 베이징 회동

김계관(왼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주선으로 28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하기 위해 28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부상에 앞서 27일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北 김계관 "우리는 핵 보유국"…이번엔 쟁점 좁힐 것

BDA 문제·이행조치 등 난제…사실상 미니 6자회담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에서 꼭 4주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댔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주선한 이날 회동은 장소와 구성원은 물론 회동 방식까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지난 달 31일 베이징 회동 때와 같았다.

북미가 6자회담 재개 합의 후 처음 만나 '샅바싸움'을 벌인 이날 회동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5시께야 마무리된 지난달 31일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는 양자와 3자 회동을 오가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기싸움은 김 부상이 이날 오전 베이징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부터 불꽃을 튀겼다.

김 부상은 '누구를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 춤 박자를 소개하겠다는 힐 차관보의 친절한 초청에 의해 길을 떠났다"는 알듯 모를 듯한 수사를 동원, 힐 차관보와의 회동 계획을 소개했다.

김 부상은 이어 "우리는 핵실험을 통해 외부의 제재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당한 지위에서 아무 때든 회담에 나갈 수 있다"며 미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핵보유국' 주장까지 넌지시 던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쟁점이 너무도 많다. 이번에 좀 좁혀야 하는데.."라고 말해 미측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BDA 계좌동결 문제, 북한에 요구할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 국들의 상응조치 등 현안을 망라한 사실상의 미니 6자회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회담 재개에 합의한 지 4주가 지나도록 차기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것도 이날 회동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 만큼 이날 회동은 6자회담 못지 않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겸한 양자협의를 가진 뒤 3자 회동의 결과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베이징=연합뉴스

美 이라크 정책 '대반전' 오나

부시-말리키, 암만서 회동

동맹국, 줄줄이 탈출 러시

이라크 상황이 급변할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9~30일 요르단 암만에서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동, 이라크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가운데 당사국인 이라크와 주변국 간의 외교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집권층이었던 수니파 저항세력은 본격적인 방해공작에 돌입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해 놓은 미국 동맹국들은 이라크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라크 문제 해결 위한 정상외교 '불꽃'=부시 대통령과 말리키 총리의 암만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배한 뒤 새로운 이라크 전략을 수립하라는 미국 내의 여론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이라크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말리키 총리의 회동을 앞두고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4번째 이란 방문길에 올랐다.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이란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부시 대통령과 말리키 총리의 암만 회담을 주관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도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외교에 나섰다.

◇美 동맹국들, 이라크 탈출 가속화=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두고 있는 영국은 내년 말까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수천 명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라크에서 88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27일 밝혔고,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이라크 주둔 자국 병력의 철수를 금주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로=연합뉴스

'射精'만 차단, 남성 피임약 개발

英 대학 "性的 영향 전혀 없어"

성적 만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정만을 차단하는 1회용 남성피임약이 개발될 전망이다.

영국 런던 킹스 대학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박사는 정관에서 정액을 사출시키는 종주근(縱走筋)의 수축을 차단하는 화학물질을 발견, 이를 알약형태의 1회용 남성피임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BBC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스미스 박사는 이 알약은 성교 몇 시간 전에 복용하며 성적 만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 아닌 만큼 그 다음 날이면 생식기능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피임약은 1회용이기 때문에 여러 달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끊기로 결심만 하면 그 다음 날로 사정이 회복된다고 스미스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지구, 50년내 새 '빙하기' 올 수도

러 연구진 "60년간 지속 될 것"

지구는 오는 2055~2060년 사이에 새로운 빙하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연구진이 예측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풀코브스카야 관측소의 카비불로 압두사마토프 소장 등 러시아 과학원 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오는 2012~2015년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 빙하기에 돌입할 것이며 빙하기는 약6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압두사마토프 박사는 태양 활동 주기를 근거로 전망을 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지구 온도가 얼마나 내려 갈 것인지는 예측하지 않았으며 빙하기가 끝나면 따뜻한 날씨가 되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구의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으나 최근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6도 상승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스크바dpa=연합뉴스